

원익인

SPRING 2021 WONIK MAGAZINE Vol. 63

원익인

SPRING 2021
WONIK MAGAZINE Vol. 63
행복 - 성취감 성취감을 느껴라

행복 - 성취감 성취감을 느껴라

The 11th Gallery
명작예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크릴을 사용했지만 마치 수채화 같은 투명한 느낌을 추구하는 황도유 화가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판교 사옥 9층에서 감상해보자.

황도유

오랫동안 실험적인 회화를 선보인 황도유 작가는 아크릴 물감을 재료로 여러 겹의 층이 쌓여 있는 형태로 흥미로움과 신비감을 유발한다. 아크릴 층의 개별적인 효과를 쌓아나가며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투명한 물질감이 느껴지도록 그리는 것이 그녀의 화풍. 프란시스 베이컨, 윌렘 드 쿠닝 등 실재하지 않는 여러 감정을 2차원의 평면에 담아낸 작가에게 영감을 얻은 그녀는 황량한 풍경, 분명하지 않은 개별적인 느낌과 정서로 회화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있다.

Alice in Wonderland_pencil, acrylic on canvas_2014

친척 여동생과의 산책 중 분간하기 어려운 벌판의 물안개 속에서 동생을 쫓아가며 느낀 기묘한 풍경과 심리를 그림 속에 옮긴 작품. 순차적으로 물감층이 쌓여 이전의 시간을 덮어버리는 형식의 회화를 보다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크릴 뒷면을 활용했다. 그녀는 이전에도 아크릴 물감의 농도를 조절해 작품 안의 시간과 공간을 관객에게 전달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그보다 더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전달하려고 했다. 개인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듯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비교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명작예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황도유 작가 02

ONE WONIK

Trend
가장 주목받는 '조연' 08

원익월드
홍태기 과장 원익큐엔씨 기술개발팀·정은하 기장
원익큐엔씨 고객지원파트 12

WONIK HERO 2021
기술개발상 부문 우수, 원익홀딩스 16

그웨이팀
원익아이피에스 환경안전팀 20

Boss vs. Leader
김수엽 님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실 24

멘토링
이준구 대리·신재민 사원 원익로보틱스 선행기술팀 시파트 28

공감라운지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소울>, 양창섭 원익홀딩스 회계팀 32

명단공개
열아홉 번째 원익인명사전, 양창모 책임심사역 원익투자파트너스
스무 번째 원익인명사전, 김세희 투자이사 원익투자파트너스 36

이달의레시피
봄철 식욕과 건강을 동시에 사로잡는 주꾸미 40

ONE WAY

원익은 지금
호칭 개선 프로젝트
원익머트리얼즈, '봄이 왔나봄' 이벤트
씨엠에스랩, 『트렌드 코리아 2021』 저자 김난도 교수 강연
원익피앤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다 46

행복일터
행복한 일터에서 찾은 성취감 62

NEWS FOCUS
뉴스 및 소식 64

Thanks for U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71

SPRING 2021 Vol. 63

행복 - 성취감 성취감을 느껴라

사보기자단 - 원익홀딩스 소병오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최예란 원익머트리얼즈 한정현 원익큐엔씨 이민희 원익 이기복 원익큐브 정은하 씨엠에스랩 박지현 원익로보틱스 서상원 원익엘앤디 박재진 하늘물빛정원 빈윤진 원익투자파트너스 최선목 / 사보담당자 서재원

발행일 2021년 6월(통권 제63호)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평동 612번지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0111
사보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ONE WONIK

긴 겨울의 터널을 뚫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라는 멜로디를 맞춰 꽃이 왈츠 한 곡을 춥니다. 그렇게 봄향기를 맡으며 행복을 충전합니다. 바로 옆 동료에게 따뜻한 한 마디를 건네 보세요. 봄처럼 내 마음에도 향기가 피어날 테니까요.



직장에서 얻는 성취감 가장 주목받는 ‘조연’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그러나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우리는 회사라는 이름의 주인공을 보조하는 수많은 조연 가운데 한 명이 된다.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회사 생활에 성취감을 느끼고 일을 즐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분명 가능하다. 올해 세계가 주목한 한 ‘조연 배우’의 수상 소감에 힌트가 있다.

주인공이 된 조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한 여배우의 이름이 연일 오르내렸다.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이는 55년간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생소한 배역까지 폭넓게 도전해온 끝에 이뤄낸 결과다. 윤여정은 오래전부터 국내 영화계에서 ‘핫한’ 배우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나리오를 읽고 마음에 들면 배역의 비중과 출연료를 따지지 않고,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

내는 연기력으로 지금도 많은 감독이 영입 1순위로 꼽고 있다. 실제로 그녀는 매우 적은 출연료로 <미나리>에 출연했다. 게다가 이 영화는 미국의 척박한 시골에서만 촬영한 저예산 독립영화였던 만큼 여러 악조건 속에서 강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을 보는 안목과 연기력은 수상이 말해준다. <미나리>는 전 세계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100여 개의 상을 받았다. 그중 30여 개는 조연상이다.

‘받은 만큼만 일 한다’의 진짜 의미

윤여정은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경쟁한 후보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다. “여우 조연상 후보 5명은 각각 다른 영화에서의 수상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역할을 연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후보에 오른 모든 작품이 훌륭하며, 이는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배역의 경중을 떠나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최선을



Yoon Yeo-jeong
1971-2020



다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직장인과 기업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이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은 이에 맞춰 맡은 임무에 충실할 때,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업 경쟁은 갈수록 빠르게 다변화해, 이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직접 자기 분야를 개척해야 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러나 연봉 상승이나 회사 복지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은 흔히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시키는 만큼만 한다” 등의 말을 통해 냉소적인 마음을 표출한다. 직장인들이 말하는 “...만큼만 일한다”의 핵심은 ‘공정함’이다. 그러나 회사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직장인과 다른 관점일 때가 많다. 기업은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은 제공되는 연봉이나 근무 환경에 비해 일을 못한다고 평가되기 쉽다. ‘...만큼만 일한다’를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커질수록 직원과 회사는 서로를 공정하지 못한 관계로 인식하게 되며, 직원 개인의 발전과 성취감은 물론 회사 전체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서로의 관점을 좁혀나가는 일이 모두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조연만의 성취감이 있다

그렇다면 ‘공정함’은 급여, 복지, 지위, 보상, 고용 안정에서 도출될까? 결코 아니다. 이것들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을 때 실망만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요인(hygiene factor)일 뿐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끊임이 없고, 근무 환경도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요인만으로는 직장생활이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 요인(motivator)이다. 회사의 목표를 동료와 함께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느낌, 즉 성취감을 얻은 직원은 자연스럽게 자기 일에 자부심을 품게 된다. 이런 성향은 사회 초년생일수록 더욱 도드라진다. 실제로 ‘대학 내일 20대연구소’에서 공개한 세대별 워킹 트렌드 조사 결과, Z세대 직장인은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세대, X세대도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장에서의 성취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세대가 바뀌면서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도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 우리 회사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차별점은 무엇 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다양한 가치와 과제들을 수시로 공유한다면 직원과 회사는 더욱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회사 안에서는 누구나 조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보면 모든 구성원이 모여야 회사라는 주인공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역할이 다를 뿐 누구나 주인공인 셈이다.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외적으로 멋진 직무와 높은 연봉 수준에 이목이 쏠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못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후보가 각자 다른 영화에서의 수상자”라고 말한 윤여정의 수상 소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㉞



바쁜 일상과 사업장이 분리되면서
돈독했던 관계가 어느새 업무 이야기와
안부만 묻는 사이로 축소되어버린
아쉬움에 훌쩍 떠난 스위스. 매일 함께
목표를 세워 트레킹을 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몰아일체를 경험했습니다.

유럽 백패킹의 성지 스위스





해외 백패킹의 행복한 상상

어떤 문명의 도움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유래된 백패킹은 서양에서는 대중화된 레포츠입니다. 야영 장비를 갖추고 1박 이상의 여행을 떠나는 해외 백패킹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그런 여유를 누릴 기회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싶었던 순간 해외 배낭여행자 모집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여행지로 스위스를 결정한 뒤 SNS와 책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캠핑장과 교통수단을 조사하며 2주 동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위스는 비교적 교통이 잘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정을 짜기도 쉽지만, 무엇보다 스위스를 선택한 이유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트레킹 코스가 있고, 다른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좋아 유럽 백패킹 1순위로

손꼽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선정되기 전이었지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간 동안 행복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섯 개의 도시, 여섯 개의 캠핑장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먼저 여섯 군데의 캠핑장 위치와 교통수단을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메모도 해두었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가며 기억하려고 한 뒤에 비로소 왕복 비행기표와 캠핑장을 예약하고 본격적으로 배낭을 꾸렸습니다. 퇴근한 후에는 여행에 필요한 장비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주말에는 텐트와 의류, 세면도구, 식량, 취사도구를 각자 준비하고 수하물 무게를 맞추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홍태기 과장
원익큐엔씨 기술개발팀,
정은하 기장
원익큐엔씨
고객지원파트
2019. 7. 11 - 7. 25**

원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해외 배낭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30명을 선발하여,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드디어 스위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12시간 만에 도착한 스위스에서의 시간은 생각했던 대로 위대한 자연만큼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특히 나사식 가스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전기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가스는 기내는 물론 트렁크에도 넣을 수 없었고, 스위스에서도 나사식 가스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았지만 대부분은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져간 알코올스토브에 알코올이 다 떨어졌을 무렵, 스위스의 한 아웃도어 매장에서 겨우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의 전기는 카라반이나, 캠핑카만 사용할 수 있

었기에 화장실과 샤워장에서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랜턴을 시간 날 때마다 충전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용 멀티 콘센트로 충전하다 보니 고속충전이 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 깜박 잠이 든 동안 충전시켜 놓은 보조배터리가 사라지기도 했죠.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아 느낀 스위스에서의 2주는 직장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은 물론 돌발 상황을 헤쳐나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매일 목표를 세워 돌길, 산길을 따라 트레킹을 하며 성취감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준 회사와 팀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능의 자동화시스템 개발과 고도화를 실현하여 자동화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선도와 선점을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 효율성 향상 및 Smart Factory 기반 구축 목적으로 생산 자동화 설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고 싶습니다.

이희균 팀장

**2021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술개발상 부문 우수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의 또 다른 성장동력을 마련하다

국내 최초 가스공급장치 자동화시스템 개발

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 시스템사업본부 제품기술 팀 이희균 팀장입니다.

간략히 시스템사업본부와 제품기술팀을 설명하면 시스템사업본부는 산업용 가스를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에게 가스 공급 시스템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며, 제품기술팀은 가스 공급 시스템과 관련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 및 상회할 수 있도록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스공급장치 자동화, 고객사 VOC/기술 지원, 공장자동화(생산설비자동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에 국내 최초로 가스공급장치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 성장 가능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가스공급장치는 반도체, FPD, LED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가스를 조건에 맞게 공정 설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연속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위험한 독성, 부식성, 가연성 가스 실린더를 사람이 직접 교체하였으나 이를 자동화함으로써 가스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공급 품질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올

해 제정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객의 니즈에 적기에 대응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16개의 특허, 16개의 출원

가스공급장치 자동화시스템은 지난 30년 간의 원익홀딩스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특히 모션 제어, 알고리즘 해석, 통신 관련 개발, 장비 통합 인터페이스 개발, PLC, HMI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인프라는 자동화시스템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관련 기술과 특허와 출원을 각각 16건을 등록하였습니다.

현재는 구현한 자동화시스템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Customizing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일조하고 있으며, 그 외 실린더 이송 및 보관에 대한 무인화 솔루션이 요구되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기술력 및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경쟁사와 기술적 격차를 더욱 벌리고,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차별화하여 가스공급시스템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열린 마인드와 경청의 힘

제품기술팀은 집단지성과 창의성 발휘가 끊임없이 요구되기에 열린 마인드와 경청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팀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전략과 규칙을 유동적으로 만들고 변화시켜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차별적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솔루션의 고도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㉞

현재 맡은 업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일하고,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쓰며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복정주 과장



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품 안정화를 통하여 고객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발 앞서 나가는 원익홀딩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대진 부장





원익아이피에스 환경안전팀
빈틈없는 안전 관리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환경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을 모토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환경안전팀.
22명의 직원이 안전, 인프라, 건설TF 총 세 개의 부서로 나뉘어 엄격한 기준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재난 예방 캠페인을 펼쳐며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영의 제1원칙, 환경안전

“환경안전팀의 가장 큰 업무는 근무자가 재해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팀장은 환경안전팀이 안전과 인프라 두 개의 파트로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신규 공장 건설, 탭 제조, 공사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건설TF를 신설해 업무가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안전파트는 안전, 환경, 보건, 소방으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내외 협력사 관리, 임직원 법정 교육, 위험기구 관리, 설비 가동 전 안전 심사 등의 안전업무와 사업장 폐기물 및 대기 방지시설과 폐수 배출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화학물질 관리 및 교육과 인·허가 등의 환경 업무와 임직원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유소견자 상담 등의 보건업무, 그리고 사업장 소방시설 정기 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비상대응훈련 등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프라 파트는 크게 운영관리 업무와 공사 업무로 나누어진다. 운영관리 업무는 설비·전기·가스 관리를, 공사 업무는 자체 공사(수선, 투자), 업무협조공사(현업의뢰)를 진행한다. 최근 들어 공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P(실험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환경안전팀이 수행한 공사만 해도 투자공사 20건, 수선공사 349건, 업무협조공사 215건에 이른다. 노철구 인프라 파트장은 공사 원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했다.

“인프라 업무는 SOP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팀과 협의를 한 뒤에 진행하다 보니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 원가 절감

환경안전팀은 지난해에 시작된 3년 공기의 가스합리화 투자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올해는 FAB 내의 연구설비에서 사용되는 TOXIC 가스 및 Chemical Fitting 부위를 제거한 배관 치환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또 FAB 내 안전성을 고객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사도 하고 있다. “스케줄 관리도 중요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공사이기에 ‘안전사고 Zero, 공사 기준 준수, 공사 품질 체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임직원 법적 의무 사항인 교육과 검진 등의 관리, 위험 작업 전산시스템 구축, 불합리 지적/개선 사항 전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연구·개발 활동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원들이 주말마다 출근해 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상주하며 복수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안전팀 김근호 팀장은 지난해 산소탱크 시설을 자동화로 변경하며 6천만 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전까지는 직원이 직접 산소탱크에 가스를 주입해야만 했습니다. 가스를 주입하는 시간도 30분~1시간에 달하다 보니 인력 낭비가 극심했어요. 2020년 1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실린더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한 달에 450만 원이 소요되던 연료비가 20만 원으로 줄어들며 약 95%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업무 중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업무 집중도가 향상된 것은 물론이다.

중대재해보호법 준비 박차 환경안전위원회

환경안전팀의 최근 화두는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보호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홀딩스, 원익큐엔씨, 원익머트리얼즈와 함께 환경안전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정기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각 사에서는 안전관리규정과 표준작업서의 준비를 마쳤고 중대 위험 요인 14건을 발굴해 개선 및 보안을 완료했다. 또 지난 3월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 각사별로 대응 매뉴얼을 수립·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안전보건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잠재위험 발굴 및 법률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익아이피에스 환경안전팀은 오늘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㉞



“중대재해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의 존속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문을 품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THE

WONIK 11TH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변화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
김수엽 님이 술선수범을 강조하는 이유다.

MATERIALS KIM SOO YOUB LEADER

김수엽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안전환경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수엽입니다. 요즘 현장의 안전이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보호 또한 사업장이 염두해야 할 원칙이자 현안인데요. 원익머트리얼즈의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익홀딩스·원익아이피에스·원익큐엔씨 등 반도체사의 안전환경 분야 상향 평준화와 최고 수준의 안전환경 기준을 지향하기 위해 2016년 8월 조직된 'SHE Committee'의 리더도 맡고 있는데요. 삼성안

전환경연구소에서 11년간 근무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모든 임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둔 주요 업무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먼저 반도체사의 안전환경에 대한 공통 규정을 정비했고, 회사별 중대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보완했습니다. 신규 공장과 해외 법인에 대한 안전환경 점검 및 진단도 문제없이 시행했으며, 최근 2년에 걸쳐 각 사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환경시설물기준서와 안전일반기준서를 발간했습니다. 한편 안전환경은 업무 특성상 현장 감독 및 관리 못지않게 서류 작업이 많은

데요.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다양한 서류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한 'SHE 통합관리시스템'을 3월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환경 분야의 서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점사항이 궁금합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일든 기본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업무를 진행하든 원칙과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도 기본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일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환경 분야는 임직원의 안전 및 전 세계적 기후 변화와 직결되는 만큼, 더더욱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중요성도 누누이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안전환경 업무는 현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류 작업이 잘되어 있어도 현장에 제대로 적용돼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기에 팀원들에게 항상 '말보다 발로 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리더는 어떤 덕목과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리더라면 반드시 '술선수범'과 '자기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시만 해서는 팀원들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팀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리더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에게는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리더는 취득하지 않는다면 학습 의욕과 능력이 오르지 않겠죠. 그렇기에 리더는 끊임없이 자기계발하

반도체사의 안전환경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고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에, 모든 팀원이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재 안전환경팀

다방면으로 일하시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모습, 팀원들의 귀감이 됩니다. 저 또한 현장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원복 안전환경팀

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팀원들의 성장 의욕을 높여야 합니다. 저도 산업안전지도사에 도전했고, 3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왜 자기계발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 자격증이 업무와 추가수당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면, 강요하지 않아도 취득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 없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는 일 이야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 탁구·볼링·클레이사격 등 팀원들이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발굴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감염병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백신을 맞고 현 상황이 종식되는 대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생각입니다.

팀원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실과 반도체사 SHE Committee의 리더를 함께 맡고 있다 보니, 팀원들의 노고가 한결 더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안전환경은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껏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안전환경 분야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전환경실과 SHE Committee의 리더로서, 팀원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㉞



말은 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반면 일을 잘 마치고 원하는 성과를 성취하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죠. 그렇기에 저에게 있어 성취감은 곧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entee신재민 사원
원익로보틱스 선행기술팀 시파트**Mentor**이준구 대리
원익로보틱스 선행기술팀 시파트

‘즐거운 호기심’으로 자부심을 성취하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호기심을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일의 묘미와 성취가 뒤따르고, 그제야 자부심이 깃든다. 이준구 대리와 신재민 사원 멘토링, 그 중심에는 이러한 진리가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멘토 이준구 대리(이하 이) 선행기술팀 시파트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멘토 이준구 대리입니다. 저희 파트는 원익로보틱스에서 생산하는 로봇이 실제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더욱 참신하고 유용한 기능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멘티 신재민 사원(이하 신) 올 1월 공채 7기로 입사한 뒤 2월부터 선행기술팀 시파트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티 신재민 사원입니다. 선배님들과 이준구 대리님의 도움으로 로봇 플랫폼 전반에 대해 열심히 익히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첫 번째 단계인 플랫폼 설치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껏 서로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 처음 만났을 때 ‘우직하게 일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껏 열심히 살펴보니 책임감이 강한 후배더군요. 처음 접하는 업무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한번 맡은 일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끈기와 성실함이 돋보여요. 저희 파트에 잘 어울리는 후배가 들어와서 든든하고 기쁩니다.(웃음)

신 저희 파트는 제가 부서 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이준구 대리님은 여유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업무를 알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저의 질문 하나에 다양한 답변을 해 주시죠. 덕분에 사회생활 초년생임에도 업무에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교육과 적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셨나요?

이 매뉴얼에 의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업무를 가장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지름길은 '직접 조금씩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설치 및 테스트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질문하라고 독려하고, 질문의 답과 함께 서너 가지 주변 지식과 정보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 대리님 말씀대로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업무 중 궁금한 점을 마음껏 질문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한층 실질적인 업무 교육이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대리님이 알려주신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작년에 회사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짐 운반 로봇인 '에어포터'를 투입했는데요. 서비스 기능을 수정 및 업데이트해야 할 일이 있어서 대리님과 함께 종종 공항으로 향합니다. 현장에서 에어포터가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을 돕는 모습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로봇이 전 세계인들과 만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이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비스 로봇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작업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팀원들과 신재민 사원이 있기에 지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신재민 사원이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최근의 관심사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생산한 로봇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능들이 처음에는 완벽할 수 없겠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선보여서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파트의 영원한 숙제죠. 이 과제를 훌륭하게 소화하기 위해 신재민 사원과 함께 철저한 시장 조사 및 분석은 물론, 플랫폼 개발 기술력을 높이는 데에도 꾸준히 힘쓰겠습니다.

신 아무래도 로봇 플랫폼 개발이 처음이다 보니, 기본 지식과 실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개발·활용 중인 기능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적응 기간을 보다 내실 있게 보내서, 모든 신입사원이 그렇듯 저 또한 저희 파트에서 한 사람의 몫을 온전히 해내겠습니다. 나아가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신재민 사원이 진행했으니 깔끔하게 해결됐네'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준구 대리님!(웃음)☺



이준구 대리

'우리의 손을 거쳐야 로봇이 움직인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직한 성격인 만큼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이 살펴보고, 더 많이 묻는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을 테니, 언제든지 멘토인 저에게 질문하세요.

신재민 사원

모르는 부분을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더 많이 질문하라며 성장을 독려해주시는 이준구 대리님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배우고 발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자란 멘티 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소울>
순간을 즐겨요
CARPE DIEM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소울>인데요. <소울>에서는 음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받은 이 영화에는 재즈 피아노의 선율이 영화의 재미를 더욱 배가시켜줍니다.

2021년 1월 개봉 한 지 8일 만에 50만 명 관객을 돌파한 <소울>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꿈, 그리고 삶이 주는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뉴욕에서 음악 선생님이 일하던 조 가드너는 제자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밴드의 오디션을 보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함께 연주하자'는 제안을 받은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두 경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렇게 영혼이 되어 죽음으로 향하던 순간 이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결국 영혼이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가서 '영혼 22'의 멘토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소울>을 추천하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한 나머지 현재의 소중함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되는 '불꽃'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 삶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과정 그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 개 개인의 성격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고유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소울>을 보고 만족하셨다면 <인사이드 아웃>, <업> 등의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애니메이션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토이스토리>, <인크레더블>과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재미있지만 아이들보다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만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극장에서 봐야 감동이 배가될 테지만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팝콘을 먹으며 감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닐까요.



어린 물고기는 나이든 물고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전 바다라고 불리는 엄청난 것을 찾고 있어요.”
 “바다?” 나이 든 물고기가 말했다.
 “그건 지금 네가 있는 곳이야.” 그러자 어린 물고기는 “여기는 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바다라고요!”

Soul



뒤늦게 깨달은 소중한 일상

누구나 가슴속에 꿈 하나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아주 큰 야망이든 소소한 것이든 말이다. 주인공 조는 재즈 피아니스트를 목표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디션에서 번번이 실패한 조는 꿈을 간직한 채 뉴욕의 중학교에서 밴드부의 임시 교사로 근무하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로부터 정식 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게 된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인 교사가 되었다고 기뻐하지만,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조는 기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때 어린 시절 자신의 제자로부터 재즈밴드의 오디션 제안을 받고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합격 전화를 받고 드디어 재즈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룰 기회를 잡은 조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공사 중이던 맨홀에 빠져 그만 목숨을 잃게 된다.

소울

영화 소울 Soul 2020
 감독 피트 닥터
 주연(목소리) 제이미 폭스,
 티나 페이, 다비드 딕스



영혼이 된 조는 천국으로 가는 레일에 올라타지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조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 밴드연주를 하기 위해 지구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만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새로운 영혼이 멘토와 함께 관심사를 찾아 동행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멘토가 '영혼의 불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재즈밴드 공연을 하고 싶었던 조는 그곳에서 소울인 영혼 22를 만난다. 하지만 영혼 22는 간디, 링컨, 테레사수녀도 멘토가 되기를 포기했고 지구는 지루하다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하지만 지구에 가고 싶은 조는 '영혼의 불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자 영혼 22는 갑자기 흥미를 보인다.

비록 고양이의 몸이지만 여럿의 도움으로 지구에 도착한 조. 그토록 그리던 무대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허탈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오히려 영혼 22와 피자를 먹고 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광경을 볼 때 행복한 자신을 발견한다. 조는 에너지 존재인 제리의 도움으로 다시 지구로 돌아와 집의 대문을 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 달성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문하는 영화, <소울>을 보며 지금 자신을 돌아보세요. 커다란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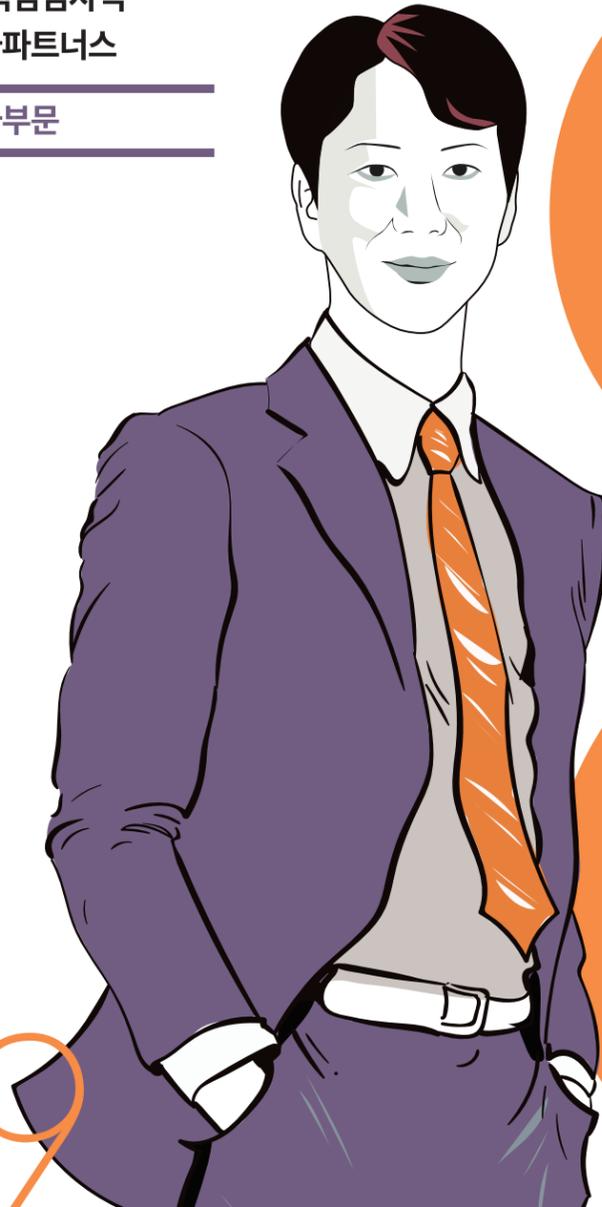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원익인명사전

양창모 책임심사역
원익투자파트너스

벤처투자부문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투자 가치가 높은 유망 기술과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코스닥 상장(IPO),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해외여행, 작년 여름 하와이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던 것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별명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은 '양군'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 곧 태어날 아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취미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는 것과 '보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취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한 덕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음식은?
밀피유나베, 밀키트 제품이 잘되어 있어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기 좋고, 완성된 음식도 예뻐서 눈도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컬러는?

다크그레이, 검은색과 다른 매력이 있어 유광·무광 모두 좋아하는 편입니다.

팀에서 나의 역할은?

바이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역으로 기술 분석, 기업 발굴, 투자, 회수 등 전반적인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릴 적 꿈은?

어린 시절에는 치과를 너무 자주 다녀 치과외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지금은 좋은 기술과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VC)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 성취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은?

목표 수준 낮추기, 돌아보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이루지 못해 좌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와 비교적 쉬운 목표를 설정하면 소소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트렌드 파악과 새로운 기술 발굴을 위해 논문과 심포지엄을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벤처투자부문의 바이오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익인에게 한마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원익의 멋진 앞날을 다 같이 만들어나갑시다!

요즘 나를 당황시키는 것은?

골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잘하지 못해서 제 자신에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박사 학위 기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로 돌아가 좀 더 열심히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새롭게 배워보면서 당시의 삶에 더 충실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투자해보지 못한 산업과 업종에 주목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원익인명사전

김세희 투자이사
원익투자파트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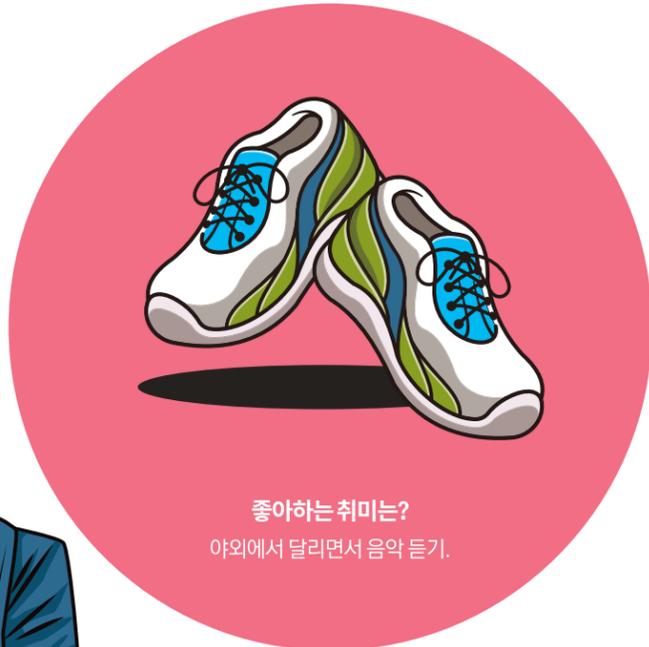
기업투자부문



행복, 성취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은?
꾸준하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튼튼한 체력으로 포기하지 않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관심 가지기, 집중해서 관찰하고 듣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좋아하는 취미는?
야외에서 달리면서 음악 듣기.



요즘 좋아하는 음식은?
치즈와 톰양공.



지금의 꿈은?
좋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요즘 나를 당황시키는 것은?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햇벌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줬더니 하룻밤 사이에 잘 자라는 식물.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세요?

기업투자부문에서 펀드 운용 관련 실무 총 책임 업무, 딜·자금 소싱, 투자구조화, 투자 심사, 다큐멘테이션, 사후 관리 및 value-up 등의 전체 펀드의 단계별 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컬러는?

자연이 가진 색이면 다 좋아하지만 특히 노랑과 분홍.

가장 기억에 남는 성취감은?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을 때.

직장에서 롤모델이 있나요?

특정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상황별로 나타나는 경쟁력, 집중력, 대응력, 마음가짐, 태도 등.

어릴 적 꿈은?

기자. 궁금한 것을 두려움 없이 파헤쳐서 진실을 알아갈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원익인에게 한마디?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 벗고 여행하기.

휴일에 주로 뭐하세요?

한강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소소한 즐거움 찾기.

내가 가장 듣기 싫은 것은?

엘리베이터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소리.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명확하지 않은 의사 전달.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아주 어려서 기억이 없을 때. 그때의 기억은 없으니까요. ☹



봄철 식욕과 건강을 동시에 사로잡는 주꾸미

산란을 앞둔 봄 주꾸미는 육질이 쫄깃하고 알이 짙 차 있어 그 맛이 일품이다. 봄이면 보령, 서천, 태안 등 서해안에서 열리는 주꾸미 축제가 한창인데, 취소되었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다. 원익인의 마음을 헤아려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꾸미 밀키트를 집으로 보내드렸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른한 봄철의 기력 회복에 좋은 주꾸미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산란기를 앞둔 3월부터 5월 사이다. 평상시에는 바위틈에서 서식하다가 수온이 올라오는 봄에 먹이가 있는 새우를 따라 연안으로 몰려든다. 이때 알을 낳기 위해 소라 껍데기에 숨어드는데 이런 습성을 이용하여 그물이 아닌 소라와 고등을 활용한 전통 방식으로 잡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낙지와 비슷하지만, 몸집이 더 작은 주꾸미는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이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 오징어의 5배나 들어 있어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같은 시기에 섭취하면 좋다. 오메가3지방산·EPA와 DHA도 풍부하여 혈류의 흐름을 활발하게 하므로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데 탁월하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이 있거나 춘곤증이 있는 분들에게 주꾸미는 식재료가 아닌 보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꾸미의 먹물에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한다. 100그램당 50칼로리로 열량이 매우 적어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열량을 조절해야 하는 다이어트 쪽에게도 좋다. 두뇌 발달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위장 점막과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을 증강할 수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뛰어난 효과를 자랑한다. 그렇다면 주꾸미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주꾸미 요리는 고추장과 마늘, 양파 등을 넣고 얼큰하게 볶은 주꾸미볶음이다. 기호에 따라서 오징어와 삼겹살을 같이 조리한 주꾸미 삼겹살, 주꾸미 오징어는 씹는 맛이 좋고 주꾸미와 삼겹살, 미나리를 구워서 삼합으로 즐기는 레시피도 이색적이다. 하지만 제철 주꾸미를 오롯하게 먹으려면 살짝 삶아 연포탕이나 각종 해산물, 미나리와 봄동 등 채소를 함께 넣은 사부사부로 먹는 것이 좋다. 주꾸미를 보관할 때는 내장과 먹통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후 먹을 만큼 비닐 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좋다.

오늘 저녁 메뉴가 고민된다면 가족과 함께 볶음, 사부사부, 삼합 등 다양한 요리로 입도 즐겁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주꾸미 요리를 즐겨보자. @



가족과 함께 집에서 즐기는 밀키트

집에서 요리해보고 싶은데 요알못(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걱정된다면 그럴 필요 없다. 요즘엔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meal kit) 요리가 많이 있다. 탱글탱글한 주꾸미의 화끈한 변신을 선보인 원익인을 소개한다.

김영락
원익큐엔씨 SCM팀



COOKING



외식하기 부담스러운 요즘, 집에서 재밌게 만들었어요. 특별한 레시피는 없지만, 제철 채소인 미나리로 만들어봤어요. 주꾸미와 남은 양념에 밥을 볶고 모차렐라 치즈까지 더 해서 볶음밥까지 모처럼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저만의 팁, 주꾸미에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양도 푸짐하게 보내주셔서 다음번엔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외식하는 기분으로 아내와 함께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홍혜림
원익큐브 PnP지원팀



봄철 대표 나물인 미나리를 함께 곁들여 미나리 주꾸미볶음을 요리했어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채소, 고기 등을 함께 준비하여 손질된 주꾸미를 넣어서 볶아 주기만 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맛있는 주꾸미 요리 끝! 실내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 캠핑이나 홈 파티에서 간편식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다녀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

오승준
원익머트리얼즈 생산3팀

HOT & SP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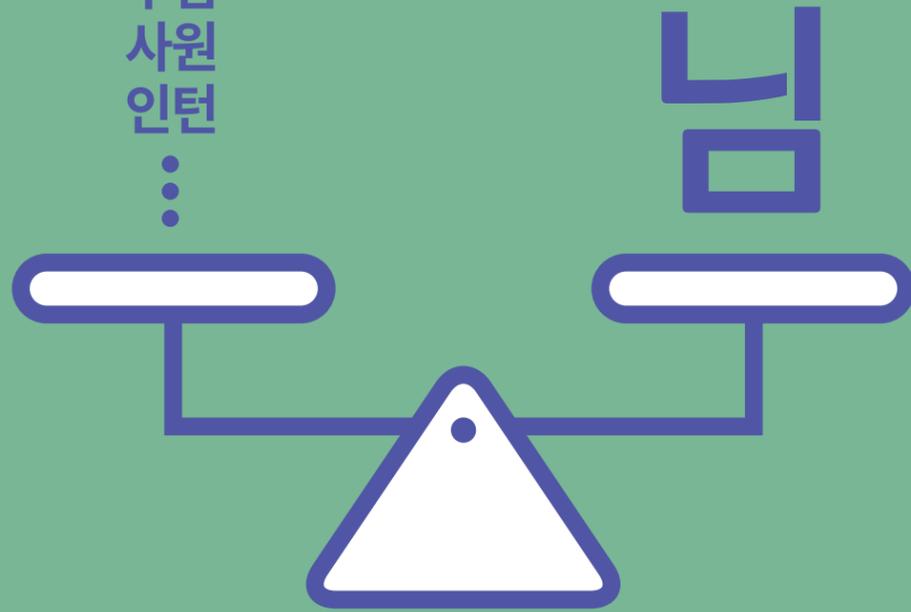
맛있는 양념과 통통한 주꾸미와 파, 양파를 추가로 넣고 제 입맛대로 달짝지근하게 설탕을 첨가해 가족들이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코로나19와 최악의 미세먼지로 마음이 답답했는데 매콤한 주꾸미를 먹으니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답답함이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이런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익인들이 재미있지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ONE WAY

행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는, 잘하는 일을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의 힘을 모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비로소 성취감이라는 행복의 엔돌핀이 샘솟습니다. 원익의 미래를 위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대리
주임
사원
인턴
...



호칭 개선 프로젝트 존중과 혁신을 향한 수평적 발걸음

존중과 혁신은 21세기 조직문화의 중요한 화두다. 경직된 상명하복식 구조에서 벗어나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집단지성에 의한 창의적 혁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출발해 전사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칭 개선 프로젝트’는 이러한 선진 조직문화의 첫걸음이다.

수평적 조직문화의 첫걸음, ‘호칭 개선’

최근 조직 내 호칭 개선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7단계로 나누어 있던 임원 직급을 5단계로 축소했으며, 네이버는 임원들의 호칭을 ‘리더’로 통일했다. SK하이닉스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직원의 호칭을 ‘TL(기술리더)’로 통합했으며, SK텔레콤과 CJ는 상호 존중을 위해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호칭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을 필두로 수많은 회사들이 수십 년간 고착화된 호칭을 수평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업들은 왜 수평적 호칭을 도입하는 것일까. 답은 명료하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과거에는 선진적인 기업 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 그들을 빠르게 따라가기 바빴다. 그러다 보니 조직이 하나의 목표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움직여야 했고, 자연스럽게 상명하복식 호칭과 조직문화가 뿌리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오래도록 살아남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윗사람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나누고 발전시키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그 첫걸음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호칭을 수평적으로 바꾸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 기업들과 원익 전사가 호칭 개선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된 이유다.

‘님’으로 고양된 소통과 존중

호칭 개선 프로젝트는 원익머트리얼즈로부터 출발했다. 원익의 전사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호칭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고, 그 결과 원익머트리얼즈가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뒤 전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원익머트리얼즈는 노사협의회와의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고, 주요 추진 활동을 수립·준비하는 동시에 호칭 개선 관련 내용을 임직원에게 공유했으며, 작년 5월 1일부로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호칭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원익머트리얼즈 신진섭 인사팀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우들이 많았다”라며 오랫동안 지속돼 온 호칭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진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 및 개선활동 덕분에 시행 1년 만에 새로운 호칭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더불어 지위고하와 나이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으며, 이제는 호칭 개선 프로젝트를 달가워하지 않던 사우들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직책으로 서로를 부를 때는 이름을 쓸 일이 없었는데, 새로운 호칭과 함께 이름을 부르다 보니 동료들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는 사우들이 많습니다. 한편 여전히 기존의 호칭을 쓰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사우들도 존재하는데요. 새로운 호칭이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호칭에서 비롯된 존중과 혁신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이어 나가려 합니다.”

원익머트리얼즈 호칭 개선 프로젝트
주요 추진 경과



원익머트리얼즈 호칭 개선 프로젝트
주요 추진 내용



원익머트리얼즈
사우
미니인터뷰

“회의 시 모두가 마음껏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현 GOC센터 물류팀장

“호칭 변경 전보다 확실히 업무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선배 사우들에게 대한 존중심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도 병행된다면 더욱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히서 품질관리2팀 기감

“호칭을 바꾼 뒤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나아가 일상적인 소통의 장벽도 한층 낮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희준 가스1팀 선임연구원

지속적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가다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올 하반기에는 호칭 개선 프로젝트가 원익 전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호칭 개선 프로젝트는 원익 전사에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이다. 원익 기획조정실 인사기획팀 최윤영 부장은 “호칭 개선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드는 마법의 열쇠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고 있다”며 호칭 개선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호칭 개선 프로젝트 전사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호칭 개선이 서로를 존중하는 밑바탕으로 작용하고, 다채로운 아이디어의 공유와 발전을 통해 개인과 조직 모두의 긍정적 혁신을 불러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칭 개선 프로젝트는 시작일 따름이다. 원익은 앞으로 전사에 수평적 조직문화가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과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형성된 존중과 혁신의 분위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원익 전사의 지속적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㉞



찰칵,
SNS에도 업로드 완료

‘봄이 왔나 봄’ 이벤트 원익머트리얼즈에 봄이 찾아왔어요!

원익머트리얼즈에 봄이 찾아왔다. 간식을 한아름 안은 푸드트럭과 함께. 4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익머트리얼즈 본사, 오창사업장, 전의사업장에서는 임원이 직접 샌드위치와 생과일주스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봄이 왔나 봄’ 이벤트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지친 몸에 비타민
충전 완료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원한 생과일주스
드시러 오세요



비록 맥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Cheers!

평소라면 새하얀 벚꽃과 섯노란 매화를 보며 꽃놀이를 즐겼을 테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익머트리얼즈는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화사한 이벤트를 계획했다. 본사와 양청, 전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만든 간식을 제공하는 이름마저 산뜻한 '봄이 왔나 봄' 이벤트를 마련한 것.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오후, 두 대의 푸드트럭에는 두 명의 임원이 직원들에게 제공할 간식 준비로 분주하다. 오늘의 메뉴는 참치샌드위치와 에그샌드위치, 그리고 면역력에 도움을 줄 상큼한 사과일쥬스.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푸드트럭 앞으로 모여들었다.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건네받는 화목한 풍경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이 광경을 사진으로 담는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증샷 보내주려고요."

폭발적인 반응에 '봄이 왔나 봄' 이벤트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은 봄바람에 꽃향기가 흩날리듯 계속되었다. ☺



"업무관계상 자주 만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얼굴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간식을 먹는 시간만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래 가스LAB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기에, 몸도 마음도 지친 직원들에게 소소하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병섭 총무팀



"평소 자주 뵈 수 없는 임원분들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맛도 좋고요. 면역력까지 생각하셔서 상큼한 과일쥬스까지.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려요."

천지슬 프리커서1팀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데, 이렇게 업무 중간에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슬아 프리커서2팀

Mini INTERVIEW



"요즈음 분위기가 우울한데, 밝은 이벤트로 분위기도 전환되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강민 총무팀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Cheers!"

Sheby George 프리커서1팀



『트렌드 코리아 2021』 저자 김난도 교수 강연
**브이노믹스의 시대의
 트렌드를 말하다**

지난 4월 27일 강남역 인근에서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1' 강연이 열렸다. 이날 약 30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각 사의 직원들을 위해 카카오TV에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대한민국 신조어가 그의 손에서 시작된 지 벌써 12년째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 현실에서 과연 올해도 트렌드가 있을지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많았지만 벌써 사회 곳곳에는 그가 뽑은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다. 김난도 교수는 날뛰는 소를 길들이는 능숙한 카우보이처럼, 코로나19를 잡아서 길들이는 카우보이라는 의미로 'COWBOY HERO'를 10대 키워드로 선정했다는 얘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키워드로 바이러스가 경제를 바꿀 것이라며 '브이노믹스'를 얘기했다.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의 예상 속에서 경기 회복은 유형과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온라인쇼핑은 코로나19가 사라져도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재택근무와 홈트레이닝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에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더하는 '레이어드홈'을 강조했다.

이어서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 '자본주의 키즈'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자본주의 속에서 자랐기에 자본주의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여기에 최적화된 경제 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총동적으로 소비하지만 걱정은 계획적으로 하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네 번째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침없이 피보팅'을 이야기하며 비디오 대여 사업으로 시작해 사업 방향의 '축을 바꿔나간' 넷플릭스를 예로 들었다. 다섯 번째 키워드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삶을 즐기는 '롤코라이프'를 꼽았다. 짧은 유행에서 재미를 찾고 다른 재미를 찾아 떠나는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롤코라이프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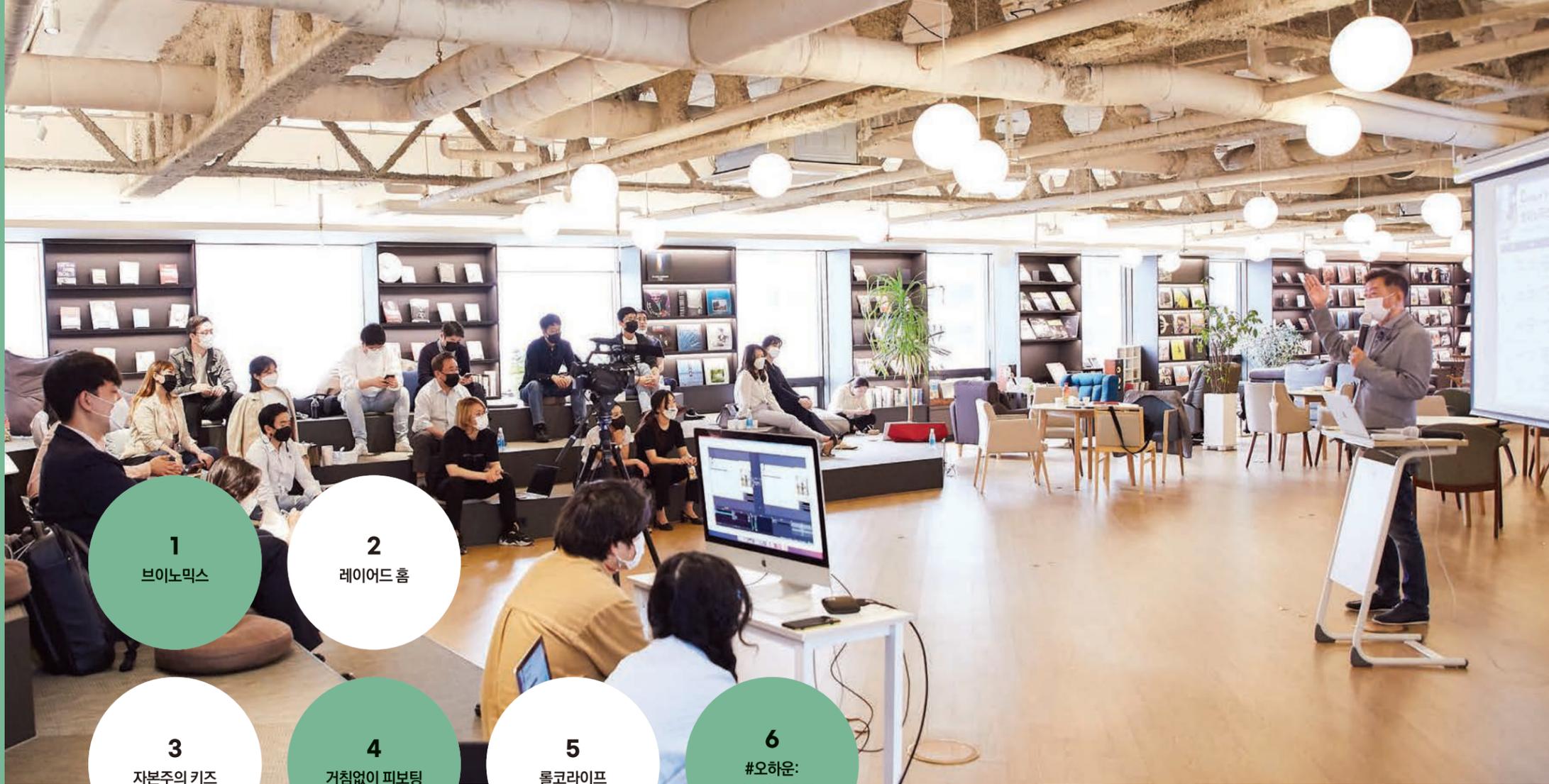
김난도 교수는 오늘 하루 운동의 줄임말인 '오하운'을 여섯 번째 키워드로 선택했다. 실제로 최근 SNS에는 거창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운동이 일상화된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해시태그가 첨부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다.

뒤이어 중고시장으로 신제품이 재테크가 된다는 'N차 신상'을, 고객이 브랜드와 함께 원하는 세계를 확장한다는 'CX유니버스',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레이블링게임'의 설명을 빠르게 이어나갔다.

그는 마지막 키워드로 언택트 기술을 보완하는 '휴먼 터치'를 이야기했다.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오히려 사람의 손길에서 구매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받으며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매로 이어지면서 사람의 힘이라는 감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트렌드 키워드의 강연을 마친 그에게 씨엠에스랩 직원들은 뷰티산업의 트렌드를 예상해달라고 부탁했다.

"뷰티산업은 아마도 피보팅, 라이프스타일의 솔루션 제공,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똑같지만 코로나19가 바꾼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김난도 교수의 두 시간 동안의 강연은 2021년 트렌드를 명쾌하게 정리해준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씨엠에스랩의 직원만이 아닌 영상으로 강연을 시청한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선사했다. @



- 1 브이노믹스
- 2 레이어드 홈
- 3 자본주의 키즈
- 4 거침없이 피보팅
- 5 롤코라이프
- 6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 트렌드 코리아 2021
- 7 N차 신상
- 8 CX유니버스
- 9 레이블링게임
- 10 휴먼터치



원익피앤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다

국내 최초로 2차전지 충·방전 설비의 100% 국산화에 성공하며 이 분야에서 국내 선두 업체인 피앤이솔루션이 원익피앤이로 사명을 바꾸고 원익의 새로운 가족사가 되었다. 원익은 앞으로 반도체 분야를 넘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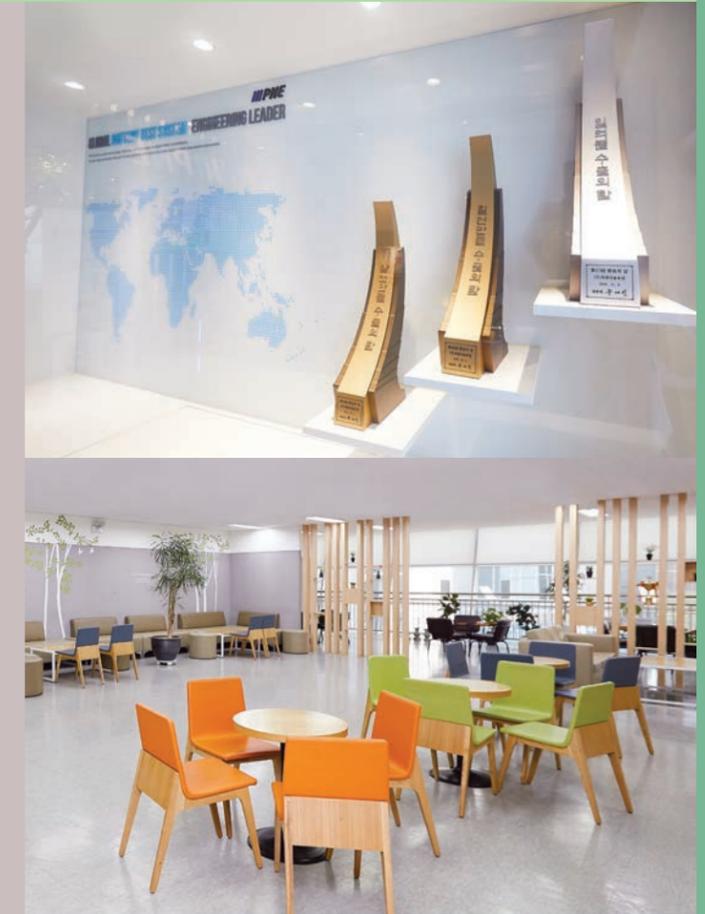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였던 2007년을 회상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우연히 LG화학에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업체 등록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금은 360명이 수원과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사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요구한 스펙과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전 직원이 밤새도록 매달렸습니다.”

LG화학의 업체 등록을 무사히 완료한 원익피앤이는 15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수주할 수 있었고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설립 16년 만에 수출 1억 불 달성

“설비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업무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사용하는 S/W는 물론 장비의 기본적인 H/W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후공정에서 토달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턴키시스템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원익의 가족사가 된 원익피앤이는 2004년 설립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2차전지 충·방전 설비를 국내 최초로 100%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을 선도하는 국내 3대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2011년 코스닥 상장, 2017년 글로벌 강소기업, 2018년 월드클래스300, 2019년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매출도 급성장했다. 2015년 442억 원에서 2019년 1,367억 원, 지난해에는 1,189억 원으로 연 평균 24% 성장하며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병흠 본부장은 “도전 정신과 기술력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지속적인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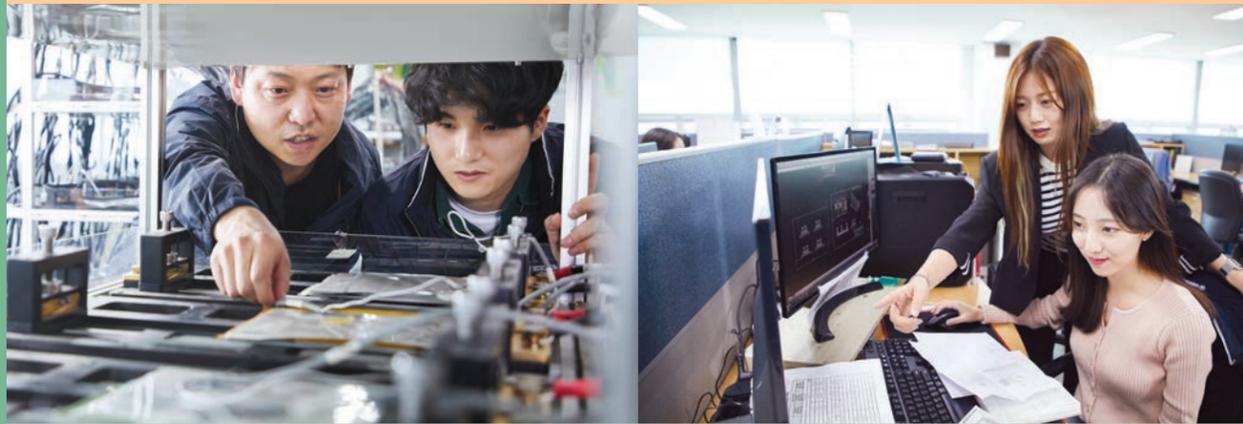
세계 유수의 완성자동차 기업들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전기차의 비중 중에서 배터리가 큰 폭을 차지하는 만큼 2차전지산업도 전기차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NE리서치>는 2020년 139GWh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30년에는 3,254GWh 약 23배 커질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익피앤이도 고도화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파우치형의 경우는 고온과 압력을 같이 가해 활성화하는 고온가압활성화장비를, 또 각형의 경우는 진공압력을 가해 가스를 제거하는 진공 활성화 장비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박동찬 대표는 "후공정에 사용되는 시험 장비가 이전에는 단순히 전지를 활성화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지 재료와 활성화 공정의 변화로 관련 설비의 요구 사항이 고도화되고 세밀해져 더욱 전문화된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익피앤이는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 28개의 특허, 디자인 12건, 신기술 인증 2건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며 턴키솔루션 공급을 위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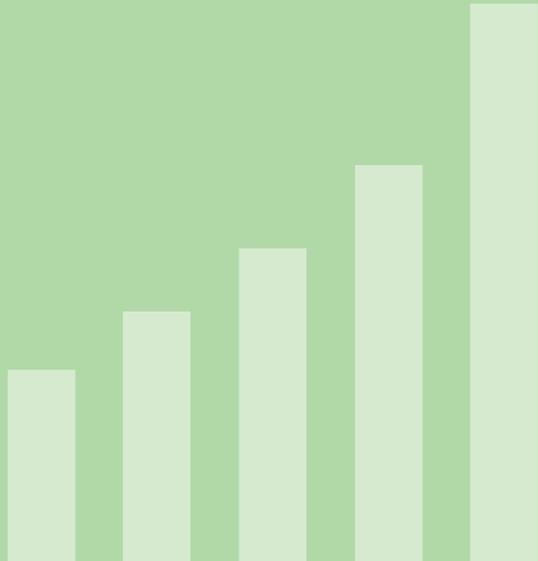
해외시장 공략의 해

360명의 임직원이 총방전사업본부, 전원공급장치



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등 3개의 사업본부와 연구소의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원익피앤이는 해외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의 대기업 배터리사는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등 약 20여 개의 해외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2차전지 성장에 따라 꾸준히 커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스웨덴 노스볼트에 190억원 규모의 사이클러 장비를 공급하며 유럽 배터리 기업에 처음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원익피앤이는 올해 글로벌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7년 중국에 합자회사인 DH피앤이를 설립했으며 2019년에는 유럽 진출을 위해 헝가리에 지사를 설립했다. 올해는 독일에도 지사를 설립해 유럽 및 중국시장 등의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원익피앤이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 등의 핵심 역량은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탈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직원들과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을 가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박동찬 대표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㉞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로 관심을 넓힌다면 더욱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박동찬 대표이사

전기자동차의 시장이 커지는만큼 전기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병홍 본부장



우린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일터에서 찾은 성취감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행복-성취감',
원익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까요.

<p>나에게 성취감은 {실질적 변화}다. 치밀하게 세운 계획안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됐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구성원과 조직 모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큰 성취감을 느끼는데요. 그렇기에 저에게 성취감은 '실질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영 원익기획조정실</p>	<p>나에게 성취감은 {행복}이다.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반면 일을 잘 마치고 원하는 바를 이루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죠. 저에게 성취감은 곧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엽 원익머트리얼즈</p>	<p>나에게 성취감은 {인정}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자기개발에 나선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재민 원익로보틱스</p>
<p>나에게 성취감은 {다양함과 새로운 깨달음}이다.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과 노력들이 실현되도록, 그 가치를 발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성과가 세상과 공유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김세희 원익투자파트너스</p>		

<p>나에게 성취감은 {Force}이다.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삶의 근본적인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홍태기 원익큐엔씨</p>	<p>나에게 성취감은 {투자}이다. 벤처캐피탈리스트(VC)에게 성취감은 오직 투자입니다. 양창모 원익투자파트너스</p>	<p>나에게 성취감은 {사람}이다. 일은 어떻게든 해결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때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양창섭 원익홀딩스</p>
<p>나에게 성취감은 {일을 하는 이유}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을 맡게 됩니다. 일의 크기와 중요도를 떠나서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책임감을 갖다 보면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것도 또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소영 원익아이피에스</p>	<p>나에게 성취감은 {성장 가능성}이다. 새롭게 배우거나 전보다 더 발전할수록 업무 성취감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해내려 할수록 스킬업 할 수 있고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업무 성취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소연 원익아이피에스</p>	<p>나에게 성취감은 {원동력}이다. 새로운 일을 접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힘이기에 때문에. 황인배 원익아이피에스</p>
<p>나에게 성취감은 {즐거움의 과정}이다. 자신의 일을 즐기며, 그 안에서 늘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취감은 저절로 따라오죠. 제게 성취감은 곧 일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체감하기 위한 여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준구 원익로보틱스</p>	<p>나에게 성취감은 {직원의 행복}이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고 조직이 튼튼해지며, 회사가 성장합니다. 회사의 성장은 직원의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신진섭 원익머트리얼즈</p>	<p>나에게 성취감은 {직원의 행복}이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고 조직이 튼튼해지며, 회사가 성장합니다. 회사의 성장은 직원의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신진섭 원익머트리얼즈</p>

66

원익홀딩스

내방객시스템 도입
직무역량 모델링 컨설팅 Kick off
사내 카페 'Café W' Open



67

원익아이피에스

R&D 직무교육체계 수립 프로젝트 성료



68

원익머트리얼즈

금융지식 습득을 위한 자산관리 웹세미나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릴레이 보급사업
Touch By Touch 참여



69

원익큐브

HP Indigo on the Block! 이벤트 진행



69

원익큐엔씨

업무 효율화를 위한 RPA 도입
2021년 새로운 외국어 교육, 'NEW PRODA'
가정의 달 맞이 소서윗데이 행사 개최



NEWS FOCUS

행복 - 성취감 성취감을 느껴라 **SPRING 2021 WONIK MAGAZINE VOL. 63**

원익홀딩스

내방객시스템 도입

신사옥으로 이전한 원익홀딩스가 '내방객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업장 보안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서 외부 방문객의 입·출입 통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장을 이용하다 보니 환경적인 요인으로 내방객을 단편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에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내방객 방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방객시스템은 5월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계열사 및 협력사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스템 담당자는 “내방객 시스템은 정보전략팀, 환경안전팀, 인사팀이 모두 협업해서 이룬 결과물이라며, 향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홀딩스 내부의 안전 강화 및 코로나19 등의 긴급 재난의 조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직무역량 모델링 컨설팅 kick off

원익홀딩스는 5월 14일 원익홀딩스 김채빈 대표,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류재준 상무, 조남채 그룹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와 역량모델링 컨설팅 협약식을 진행했다. 컨설팅은 성과 창출과 직결된 핵심 직무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원익홀딩스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원익홀딩스 시스템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익홀딩스 김채빈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 강화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핵심 역량의 규명을 통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류재준 상무는 “원익홀딩스 주요 관계자들이 본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고, 이번 컨설팅이 원익홀딩스의 기술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원익아이피에스

R&D 직무교육체계 수립 프로젝트 성료

사내 카페 'Café W' Open

원익홀딩스가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신사옥 'Café W'를 오픈했다. Café W는 원익홀딩스 임직원과 협력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4층 카페 앞에는 옥상정원을 마련해, 직원들이 잠시나마 리프레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현재 아메리카노 외에도 13개 종류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직원들의 VOC를 조사해 메뉴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현재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옥상정원과 카페 내부에서도 취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R&D엔지니어에게 구체적인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원익아이피에스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R&D 직무교육체계 수립 프로젝트'가 약 6개월간의 장정 끝에 지난 4월에 완료되었다. R&D팀장 전원은 물론 각 영역별로 선정된 직무 전문가 49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해 원익아이피에스에 적합한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 현재 교육 인원과 강사 수준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효과적인 수강이 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는 크게 3가지(전체 공통 과정, 부문 공통, 팀 전문직무)로 나누었으며 카테고리별로 5개의 레벨을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연구원 개인별로 기술역량의 성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과정 개발 등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익머트리얼즈

금융 지식 습득을 위한 자산관리 웹세미나 진행

원익머트리얼즈는 2021년 3월과 4월 직원들의 필수 금융 지식 학습을 위해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맞춤형 자산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두 달 동안 실시했다. 최근 자산관리, 부동산 등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육을 대면으로 준비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 이슈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3월에는 연말정산의 이해(직장인을 위한 절세 가이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3층 연금관리(국민/퇴직/개인연금) 및 평생소득 만들기, 퇴직 전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 TIP! 4월에는 글로벌 시황, 테마형 ETF, 부동산 시장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웹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웹세미나는 교육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편한 시간에 사내에서 또는 집에서 전문가를 통해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주차별 교육 내용과 관련된 퀴즈 이벤트를 통하여 정답을 맞춘 직원을 추천하여 카페 음료 및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발송하는 등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웹세미나를 수강한 직원들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테마별로 수강할 수 있어서 흡족스러웠고, 영상을 통해 퇴근 후 접속하여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 내가 도움받은 내용을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영상 링크를 전달하여 자산관리 꿀팁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라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면 각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이번 세미나 내용을 대면으로 사내 교육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자산관리 세미나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팀장, 파트장, 현장리더 대상 리더십교육 진행, 본부별 글로벌 리더 1:1 화상영어 프로그램 진행, 주재원 후임자 양성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준비·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릴레이 보급사업 Touch By Touch 참여

원익머트리얼즈는 생산의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환경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청주 동부소방서 주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릴레이 보급사업 Touch by Touch'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와 더불어 안전환경이 경영의 제1원칙이라는 방침에 전 구성원이 안전환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원익머트리얼즈는 주택화재 위험성 및 기초 소방시설 보급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안전의식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 홍보 영상물 제작과 함께 4월 16일 금요일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머트리얼즈 대표로 김수엽 안전환경실장, 엄인용 안전환경팀 ○○가 참석하여 주택용 화재경보기 400개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Touch by Touch 프로젝트는 기업체 릴레이 사업으로 삼성SDI, 셀트리온제약, CG녹십자 등 지역 소재 기업에서 이어서 릴레이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머트리얼즈는 지역사회와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원익큐브

HP Indigo on the Block! 이벤트 진행

지난 4월 원익큐브는 HP 인디고 상업인쇄 고객을 위한 HP Indigo on the Block 행사를 진행했다. 원익큐브는 주요 고객사 2곳을 선정하여 임원부터 디자인 및 기획 담당 실무진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HP Indigo on the Block 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원익큐브는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HP인디고 신제품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 HP의 신제품인 HP 인디고 15K 소개 영상 관람, 2) HP 어플리케이션 - Color Beat 기능소개 3) HP 인디고 100K 장비 소개 및 실제 시연 영상 관람 4) Q&A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종료 후 고객사 실무진들은 HP Indigo on the Block를 통해 장비 운용 시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냈다. 원익큐브 담당자는 고객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원익큐엔씨

업무 효율화를 위한 RPA 도입

원익큐엔씨는 올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RPA란 반복·정형화된 업무를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자동 수행하며 소프트웨어로, 이를 통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대신 수행하여 인적오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주 52시간, 포스트코로나 상황 등으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원익큐엔씨는 업무의 표준화·자동화·안정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차적으로 퀴츠사업부의 작업 지시서 발행과, 퀴츠·세라믹사업부의 검사성적서 관리 업무에 RPA를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5월 적용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확산하는 한편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파악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사 워크숍을 실시했다. 추가 발굴된 과제들은 RPA 구현 가능 여부와 도입 효과를 검토한 뒤 향후 과제로 선정해 RP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용이 완료된 과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원익큐엔씨

2021년 새로운 외국어 교육, 'NEW PR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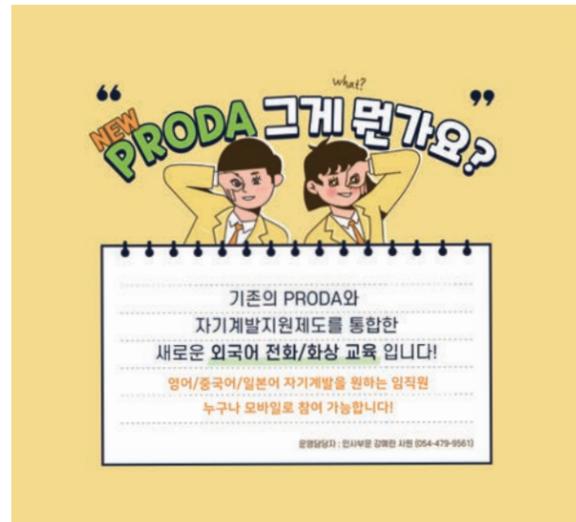
원익큐엔씨는 5월, 새로운 외국어 전화·화상 교육과정인 'NEW PRODA'를 개설했다. 이번 NEW PRODA는 기존 PRODA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 영어만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어, 중국어 과정을 추가했다. 또 어학교육 전문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강사 POOL과 수업 가능 시간대를 늘리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해 수강생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했다.

또 기존 PC만을 통해 접속할 수 있었던 가능하던 것에서 벗어나 모바일,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교육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1:1 맞춤형 교육과정, 강사 추천 서비스, 예복습 시스템, 개인별 평가보고서를 제공해 수강생에게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고, 객관적인 성취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와 고객사가 많은 원익큐엔씨의 특성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어왔고, 임직원들의 많은 니즈가 있었던 만큼,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정의 달 맞이 소-서윗데이 행사 개최

원익큐엔씨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3일~14일 이틀 동안 감사했던 임직원에게 꽃과 편지를 전하는 '소-서윗데이(소소하게, 서로 함께(with))'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출근 시간에 캠퍼스별 마련된 꽃과 카드엽서를 받아 평소 감사했던 분께 마음을 전했다. 추가 이벤트로 소서윗데이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여 사진과 감사 사연을 공유하도록 하고, 사연을 공유해준 선착순 90명, 감사 인사를 가장 많이 받은 감사왕,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한 직원들은 "쑥스럽지만 이번 이벤트를 통해 그동안 감사했던 분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위해 마련된 600송이의 꽃과 600개의 카드는 각 캠퍼스에서 대부분 소진되었다.

소-서윗(with) Day 이벤트는 원익의 핵심 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 중에서 특히 소통 측면에서 임직원 간 화합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일상 속 감사와 격려가 오가는 따스한 원익큐엔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anks for U

원익인은 여러분의 열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선물을 드려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보내실 곳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보내실 때 코너 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선물이 배송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내는 법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바로 보내기를 해주세요.

문자 보내기 >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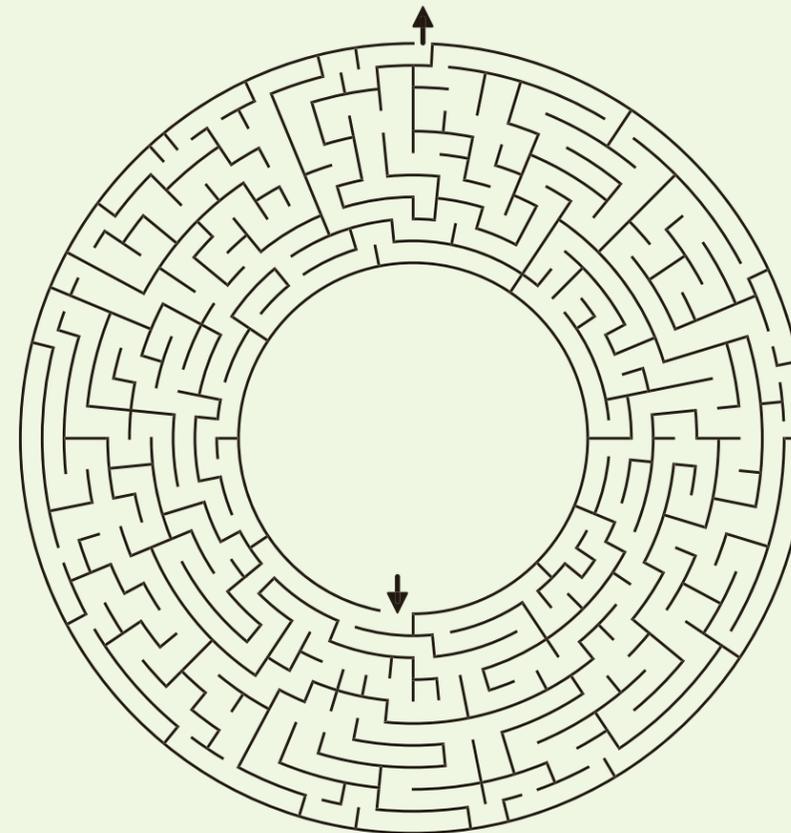
피플페이지 메일을 넣어주세요.

코너 추천·사연은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미로 찾기 미로를 탈출하신 분께는 스타벅스 음료권을 보내드립니다.

그중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께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6월 17일까지 보내주세요.



자료제공 Maze Generator

지난 호 참여자
스타벅스 상품권 2만 원권 (8명)

그레이트팀

정훈, 김민석, 전민광, 이병숙(원익큐엔씨)

명단공개

박범기, 이수환(원익머트리얼즈)

멘토링

이현준, 노윤영(원익홀딩스)

액자 선물

WONIK HERO 2021

원익아이피에스, 원익머트리얼즈

공감라운지

김규아(원익로보틱스)

Boss vs. Leader

신형주(원익아이피에스)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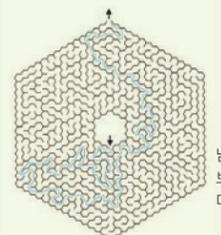
스타벅스 돌체라떼

김혜경(원익큐브) 지사 근무자로서 원익 사옥의 '원익 카페' 코너를 재밌게 읽었어요! 무엇보다 코로나19에도 안전한 원익 카페에 방문하여 추천해주신 콜드브루와 딸기 스무디도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미로 찾기 응모자

스타벅스 돌체라떼, 아메리카노 (12명)

1등_ 돌체라떼 김무성(원익머트리얼즈) 송태호(원익머트리얼즈)/ 강예린(원익큐엔씨)/ 김혜경, 이다영, 남희진(원익큐브)/ 천세민, 김규아, (원익로보틱스)/ 김예은(씨엠에스랩)/ 김희수, 박정일, 차유리(원익아이피에스)



남희진님께서 보내주신 미로탈출입니다.